

'투수 복귀' 오타니, 300명 앞에서 세 번째 불펜 투구...153km 광

등록 2025.02.23 11:47:41



[피닉스=AP/뉴시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23일(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멀백랜치에서 세 번째 불펜 투구를 소화하고 있다. 2025.02.23.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마운드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산케이 스포츠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오타니는 MLB 다저스의 스프링캠프 훈련장인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멀백랜치에서 세 번째 불펜 투구를 소화했다.

오타니는 직구와 투심 패스트볼, 컷 패스트볼(커터) 등 총 25개의 공을 뿌렸다. 컷 패스트볼은 이번 불펜 투구에서 처음 구사했다.

이날 로버츠 감독,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 브랜든 곰스 사장,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 등 300여명이 오타니의 불펜 투구를 지켜봤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직구, 투심, 컷 패스트볼 모두 정말 좋았다"고 치켜세우며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3km가 나왔다"고 말했다.

2018년 빅리그에 데뷔한 오타니는 2023시즌까지 투타 겸업을 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다저스와 계약한 첫해였던 지난 시즌에는 타격에만 전념했다. 2023년 9월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마운드에 설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부터 투구 프로그램을 시작한 오타니는 스프링캠프에서 순조롭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투타 겸업 복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타니는 지난 16일 첫 볼펜 투구에서 공 14개를 던졌고, 19일에는 21개를 뿌렸다.

올해 다저스가 치른 세 차례 시범경기에는 모두 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